

# “科學技術의 획기적 振興을 위한

## —民主化시대에 부응한 民間主導정책과



李 寬 장관

激  
勵  
辭

존경하는 朴泰源 會長님.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科學技術界 원로, 先輩님과 代議員여러분 .

오늘 韓國科學技術團體總聯合會 제23회 정기

총회 席上에서 평소 우리나라 科學技術振興과 창달을 위하여 진력하고 계시는 여러분께 격려의 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더우기 최근까지만 해도 科總 會長團의 일원으로 미력이나마 우리나라 科學技術振興에 일익을 담당하여 오던 차 금번 제6共和國의 출범과 더불어 科學技術處長官이라는 중책을 맡고 여러분께 인사의 말씀을 드리게 되고 보니 더 한층 감회가 깊습니다.

韓國科學技術團體總聯合會는 지난 20여년 동안 여러가지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學術活動을 통한 우리나라 科學技術의 진흥과 혁신은 물론 國民生活의 科學運動을 통하여 國家社會 발전에 크게 기여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잘 아시는 바와같이 우리는 지난해 12%를 상회하는 세계 最高의 經濟成長을 기록하였을 뿐만 아니라 技術革新에 바탕을 둔 고부가가치 商品輸出의 호조로 거의 100억불에 달하는 國際收支黑字를 달성하는등 先進圈 進入의 초석을 굳건히 다진 한 해였습니다. 이와같은 우리 경제의 성장배경에는 科學技術人 여러분의 헌신적인 노력과 產·學·研간의 상호협동이 크게 뒷받침 되었다고 하겠습니다.

우리는 2000년대 세계 10위권 技術先進國 進入이라는 국민적 여망을 양 어깨에 짊어지고 있습니다. 비록 우리의 전반적인 기술수준이 先進國과 비교해 볼 때, 격차를 보이고 있다고 하겠으나, 최근 活性化되고 있는 과학기술 研究活動과 우리의 축적된 잠재력을 감안한다면 멀지 않은 장래에 우리도 先進技術의 進入段階에 도달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 財源 확보와 制度 마련에 最善”

## 과학기술정책 발전에 전력

그러나 昨今の 國內外 정세는 우리에게 유리한 상태로만 전개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선 國際的으로는 技術競爭의 격화와 무역마찰의 심화, 그리고 知的所有權과 市場開放 압력이 계속됨으로써 國內 技術基盤構築을 어렵게 하고 있으며 國內的으로도 원화의 급격한 평가절상, 노사분규와 이에 따르는 고임금시대에 대처하여야 할 많은 과제를 안고 있다고 하겠읍니다.

따라서 우리는 科學技術의 革新을 통하여 이러한 불리한 對內外 環境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이를 착실히 해결해 나감으로써 우리 經濟의 안정적인 성장과 國家의 번영을 계속 이루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本人은 就任한지 얼마 안되어 施策方向을 아직 具體化하지는 못했으나 평소 느끼고 있는 생각의 일단을 말씀드리면,

첫째로, 科學技術 革新의 주역이 될 창의적 과학두뇌와 精銳技術 인력의 양성과 함께 基礎研究의 육성에 힘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방대한 研究潛在力을 가진 大學과 學會를 중심으로 창조적 연구를 활성화하여 자주적인 과학기술 발전의 기반을 구축하고 우수한 科學技術 인재를 양성하는 한편 실험실의 창의적인 基礎研究 結果가 바로 산업화 될 수 있도록 產學協同을 활성화 하여야 하겠읍니다.

둘째로, 科學技術이 國家發展의 원동력이라는 데에 모든 나라가 인식을 같이하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經濟, 社會, 文化 등 모든 政策과 制度의 발전에 있어 科學技術을 존중하고 우선하는 풍토를 조성하여 科學技術人의 권익이 신장되고

창조적인 연구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연구분위기 조성이 이루어져야 되겠읍니다.

세째로, 科學技術發展의 견인차적 역할을 담당할 科學技術 투자가 획기적으로 증대될 수 있는 方案의 摸索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금년연초에 科總이 주최한 과학기술인 新年朝餐會 석상에서 大統領께서도 말씀하신 2000년대까지 과학기술 투자규모를 GNP 대비 5% 수준까지 끌어올리기 위한 財源의 확보와 제도적 장치를 강구하여 과학기술의 획기적인 진흥이 실현될 수 있도록 本人으로서도 최선을 다할 각오입니다.

위에 말씀드린 諸般問題들을 推進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科學技術界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여 “2000년대를 향한 科學技術發展 長期計劃”을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보완하고, 투자를 비롯한 人力支援制度 등 科學技術政策의 다각적인 종합분석과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한편 民間主導 政策과 民主化時代에 부응하여 간접적이고 유인적인 民間主導의 科學技術施策을 발전시켜 나갈 생각입니다.

2000년대 福祉社會 建設을 목표로 우리 科學技術人 모두는 科總을 구심점으로 하여 상호협력하고 중지를 모음으로써 國家 科學技術의지의 실현은 물론 國民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여 주실 것을 이 자리를 빌어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끝으로 韓國科學技術團體總聯合會와 會員團體의 무궁한 발전과 科學技術人 여러분의 家庭에 幸運이 함께 하시기를 충심으로 기원합니다.

科學技術處  
長官 李寬